

제428주년 권율 도원수
행주대첩기념행사 봉행



행주산성 총장사

제428주년 권율 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가 3월 14일(일) 11시 이충구 제전위원장과 권정택 대종회 부회장, 권순호 추밀공파 매헌공 종중 명예회장, 권용주 추밀공파 매헌공 종중 전 회장, 권오상 총무국장(사무총장 직무대행), 권행완 편집국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총장사에서 간소하게 봉행되었다.

당초에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방침에 따라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제전위원회(위원장 이충구)에서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제절명의 국가 위기 시 묵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호국영령들을 위해 행주대첩제 기념행사를 께사(闕祀)할 수는 없다는 의견에 따라 제전위원 4명만 참석하고 제수비도 자체 부담하여 제례를 간소하게 봉행하였다.

제전위원회는 초헌관에는 이영찬 전 전교, 아헌관에는 이충구 제전위원장, 종헌관에는 장한진 제례위원으로 각각 분정하였다. 집례는 김광주 사무국장이 담당하였다.

안동권씨 대종회(회장 권해옥)와 종장공 종중에서는 각각 봉축 화환을 보내 제428주년 행주대첩제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추밀공파 매헌공 종중 회장단 대종회 방문
찬조금 200만원 대종회에 기증



권혁승 감사, 권영렬 이사, 권용배 감사, 권태관 회장, 권해옥 대종회 회장, 권의철 고문, 권순호 명예회장, 권용주 전 회장, 권용호 총무(왼쪽부터)

매헌공(梅軒公) 종중 권태관 회장을 비롯한 권용주 전 회장, 권순호 명예회장, 권의철 고문, 권혁승 권용배 감사, 권용호 총무, 권영렬 권영현 이사 등 회장단 일행이 3월 17일 11시 대종회를 방문하였다.

권해옥 회장은 회장단을 반갑게 맞으며 오늘 양촌 권근 선생의 바로 동생인 매헌공 종중 회장단의 대종회 방문은 매우 뜻이 깊다. 소종중 회장단이 대종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좋은 문종인 매헌공 종중에서 대종회를 방문해 주셔서 의미가 더 큰 것 같다. 훌륭한 선조의 유지를 잘 받들어 종친회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요사이 다소 잡음이 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서로 합의하고 의논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용주 전 회장은 매헌(梅軒) 권우(權愚, 1363~1419, 추밀공파, 16세) 선조는 아들을 삼형제 두셨다. 그래서 매헌공 종중은 3파로 구성되어 있다. 맏이가 판윤공(判尹公) 권조(權措)이고, 둘째가 호당공(湖堂公) 권채(權採)이며, 셋째가 참판공(參判公) 권기(權技)이다. 안동권문에서 자람으로 삼는 4시(始)는 한국 최초의 족보인 성화보(成化譜)의 족보지시(族譜之始)를 필

두로, 기로지시(耆老之始), 문형지시(文衡之始), 호당지시(湖堂之始)이다. 그중에 호당 권채 선생이 독서당에 맨 처음 들어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시작했다 해서 호당지시라고 부른다. 그 호당이 바로 매헌의 둘째 아들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오늘 매헌공 종중에서 대종회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소종중에서 대종회를 방문한 것도 매헌공 종중이 처음이라고 하니 우리가 시발점이 되어 소종중과 대종회와의 교류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태관 회장은 과산의 족친들과 향사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권순호 명예회장은 호당공 집 선조님이 투철해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라오는데 5일, 종중 일 보는데 5일, 내려가는데 5일 총 15일이 걸리면서도 계속 문종을 드나드셨다. 그러다 증조부께서 남양주 매헌공 묘소 밑 지금의 현대병원 옆에 800평 짜리 논을 샀는데 그것이 종중 재산이 되었다. 요즘 그 종중 재산으로 조금 시끄럽긴 하다. 그런데 매헌공 종중 모든 이 사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결정할 사항이라 별 문제없다고 설명



매헌공 종중에서 대종회로 보낸 매화 화분

했다.

권해옥 회장은 어느 집안이나 문제없는 집안은 없지만 그래도 좋은 문종에서 족친간에 갈등하거나 불화하지 않고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서 서로 잘 되고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

난 정기총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족친 간에 고소 고발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권순호 명예회장은 종중의 중요한 사안을 누가 혼자서 결정한 일이 아니다.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다. 권용주 전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어릴적부터 봤지만 옛날에는 그냥 논이었다. 그런데 지금 개발되어 그래도 종중 재산으로 종중 일을 운영해 나갈 정도 비용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종중 재산을 잘 관리하여 지난 2019년에는 300년 동안 풍상을 겪으며 거의 인몰되어 세간에 전함미 없었던 매헌집(梅軒集)도 번역하여 출판하고 매헌공 묘소에서 고유제를 지낸 바 있다.(본보 2020년 1월 1일 8면 참조) 후손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도모할 대사업고 매우 중차대한 사업이 아닐 수 없었다. 이처럼 재원이 창출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종중 재산을 자주 늘려나가서 재원이 축적되어야 그래야 대종회에 기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말했다.

권해옥 회장은 매헌공 종중 회장단의 방문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도 많은 종중에서 대종회와 교류하며 우의와 친목을 돈독히 다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월 임원 선임, 찬조금 및 회비 납부 내역	
〈임원선임〉	
'21.03.24자 권용주 부회장(매헌공종중 고문)	
'21.03.29자 권태관 이사(구미)	
〈찬조금〉	
권갑현 편집위원장	100,000
매헌공종중	2,000,000
이 사	
권순길(서울송파)	300,000
권재호(산청)	300,000
권순구(원주)	300,000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총 : 3,0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	

2021년 始祖 太師公 春享祭 案内

2021년도(權紀 1092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춘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일 시 : 2021년 4월 5일(월), 오전 10시
- ♣ 장 소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일원)
- 연락처 : 서울 02-2695-2483~4/안동 054-854-2256

- ※ 이번 춘향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위원회 중심으로 간소하게 봉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전례위원과 헌관은 반드시 참제하여 주시고, 족친 여러분께서는 상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족친여러분께서는 4월 5일(월) 오전 10시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하여 1분간 묵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춘향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종중이나 단체의 제수성금은 향사 전용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301-0268-6817-11, 예금주: 안동권씨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